



서울대교구 사제단이 6월 27일 교구 주교와 명동대성당에서 사제 성화의 날 미사를 봉헌한 후 성전 앞에 모여 손을 흔들고 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제공

## 약함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은총

뉴욕 KCLC 이나시오 영성 침묵 피정 두려움 넘어 은총의 길로 초대



뉴욕 로올라 피정의 집에서 이나시오 영성 침묵 피정을 마친 후, 지도신부 김우중 스테파노 신부(가운데)와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은 약함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침묵과 기도, 성찰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회심으로 이끄는 여정이었다.

【뉴욕】뉴욕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NYKCLC, 의장 허정 아나스타시아)는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로올라 피정집에서 이나시오 영성 침묵 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피정은 김우중 스테파노 신부(한국 예수회)의 지도로 이루어졌으며, 회원과 비회원 38명이 참가했다.

피정은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 원리에 기반한 침묵과 기도, 성찰의 여정으로 이루어졌다. 김우중 신부는 자신의 사제 성소 식별 여정과 인생의 전환점에서 경험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며, 식별의 원칙뿐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전했다.

김 신부는 “우리의 약함과 결핍은 곧 은총이며, 우리의 가난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베들레헴이 된다”고 전하며, 약함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하느님과 진정 만남으로 이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묵주기도, 성체조배, 관상기도 등 전인적인 기도 여정의 중요성과, 성모신심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은총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의식 성찰(양심 성찰)을 직접 지도하며,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였다.

특히 hard consolation, 즉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끈다는 점을 일깨우며, “고통과 수난의 자리에 은총이 임하며, 우리는 고통을 통해 겸손에 이르게 된다”고 전하였다.

예수님과 성모님, 사도 바오로처럼 약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이 따르며, 이는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적 실망의 시기일수록 더욱 기도와 묵상에 머물며 은총을 청하고 깊은 성찰로 나아가도록 격려했다.

참가자 최선경 카타리나 자매는 “진심 어린 신부님의 열정이 결핍과 약함에 대한 나의 콤플렉스를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셨고, 역시 혼자만의 조용한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욕 KCLC는 매년 정기적으로 영신수련 침묵 피정을 주최하고 있다.

다음 피정은 2025년 10월 1일(수)부터 5일(일)까지 같은 장소인 로올라 피정집에서 4박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이수현 소화테레사 유상현 스테파노

## “그대가 받은 하느님 은사, 불태우시오”

서울대교구 사제 성화의 날, 정순택 대주교

사제들에 당부 “모든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라”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창문으로 밖을 향해 씨를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나섰다. 교회는 무기력하게 있거나 혹은 본당에 찾아오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복음화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회사·단체·기관 등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이에게 다가야 합니다.”

6월 27일 서울대교구 주교와 명동대성당,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예수성심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미사 강론에서 클라우디오 후메스 추기경(당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이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를 기념하며 사제들에게 보낸 서한(2008년)의 일부를 인용했다.

정 대주교는 본당 사제의 수호성인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의 덕행을 언급하며, 사제직의 본질과 의미를 강조했다.



“비안네 성인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초연함, 모욕을 받아들이는 깊은 겸손, 특별한 고행과 속죄의 정신, 시련과 악마의 유혹에 맞서는 용기, 정결한 삶, 하느님과 의지, 성체에 대한 사랑, 고해소와 강론대에서 받았던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끊임없는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봉사, 병자와 가난한 이들·죄인들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놀라운 능력으로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정 대주교는 또 사제 양성 지침서를 인용해 △묵묵히 단일한 제자의 길을 걷는 사제 △통합적 시각을 지닌 사제 △공동체적 정신으로 함께하는 사제 △선교하는 사제 등 네 가지 특성의 사제상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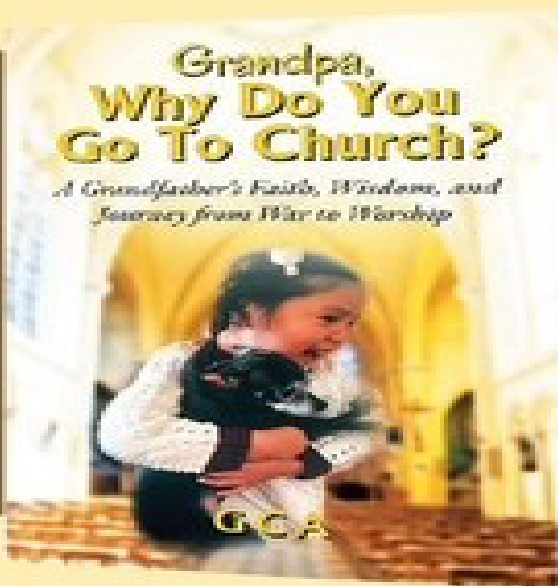
정 대주교는 사제들에게 “‘사제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증거해야 한다’,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시오’(2티모 1,6)라는 이 두 문장만 가슴에 간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미국서에서 자란 영어권 손주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 또는 Barnes and Nobles에서 책을 Grandpa, Why Do You Go To Church? 로 검색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는 저자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메시지로 집필한 책입니다.

또한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이 책에 담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지혜는,

모든 점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자선 기부와 교회 공동체 속 연결의 힘이

어떻게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E-Book원하시는 분께 이메일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Book신청 이메일 주소: [jchung1@me.com](mailto:jchung1@me.com)